

픽처 스토디 006

책과 인쇄의 역사

크리스치안 필만 글 | 요아힘 크나페 그림 | 오석균 옮김



북폴리오
북폴리오

차례

읽을거리가 너무 많다	6
옛날에는 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8
구텐베르크와 그를 도운 사람들	10
금속 활자를 만들다	12
활자를 낱말로, 낱말을 문장으로	14
구텐베르크 시대의 인쇄	16
제본	18
최초로 인쇄된 책	20
인쇄술이 발달했던 한국과 중국	22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간 인쇄술	24
책과 독자	26
오늘날의 인쇄	28
책의 오늘과 내일	30
가 볼 만한 박물관	32



읽을거리가 너무 많다

우리 주변에는 읽을 것이 무척 많습니다. 길거리의 간판, 포장지, 돈, 그리고 스티커에도 무엇인가가 찍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신문을 보고 책을 읽습니다. 보다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진을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뒤지기도 합니다. 이제 책이나 잡지, 컴퓨터의 글은 매우 친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렇게 읽을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1397년~1468년)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까지는 책이 매우 귀하고 비쌌습니다.





옛날에는 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훨씬 전에도 책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책의 형태는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중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5천 년 전에 흙으로 빚은 토기 조각에도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뒤에는 두루마리와 말집으로 만든 판을 책으로 이용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책을 책방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책을 갖고 싶은 사람은 먼저 만들어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베끼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베끼게 했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책을 베껴 썼습니다. 글자의 크기나 낱말 사이의 간격을 똑같이 맞추고, 작은 그림이나 장식도 멋지게 그려 넣었습니다. 이렇게 베껴 쓴 책을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그 때는 송아지나 양 같은 짐승의 가죽을 얇게 다듬어서 만들 양피지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양피지는 질기긴 했지만, 값이 무척 비쌌습니다. 12~13세기 초에 양피지보다 값싼 재료가 서양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이'였습니다.

한 권의 책을 베끼는 데에도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렸기 때문에, 오늘날에 비하면 책이 몹시 귀했습니다. 수도원과 대학이 아니고서는 책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자기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책을 그냥 외워야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거의 글을





문났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도 매우
 드물었습니다. 왕이나 귀족도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앞에서 앞으로
 내용을 전혀 들었습니다.
 전쟁이나 질병, 자연의 재앙과 같은
 소식도 어떻게든 자신이게서,
 또는 교회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모든 책을 알아서 베껴 쓰는
 것은 몹시 상가선 일이었습니다.
 책의 한 쪽 한 쪽을 봉재로 찍어 낼 수
 있는 도장 같은 것이 있다면 훨씬 쉬웠겠지요.
 그런 도장을 한 번 과 놓으면 여러 장을
 찍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판
 인쇄술이 발명되었습니다. 목판 인쇄술이란
 나무판에 글자를 불리하게 새긴 다음, 잉크를
 묻혀서 양피지나 종이에 찍는 기술을 말합니다.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이렇게 인쇄를 했습니다.

구텐베르크와 그를 도운 사람들

목 판으로 인쇄를 하는 것은 책을 손으로 베끼는 것보다 훨씬 빨랐지만, 이걸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이의 앞면을 쪽판으로 누르면, 누른 지국이 뒷면에 남기 때문에 앞면만 인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쪽의 모든 면에 맞추어 글자를 수없이 나무판에 새기는 것도 말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1490년~1495년 사이에 독일 사람인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만든 인쇄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을 찍어 내기 위해 압축기를 사용했습니다. 압축기는 종이의 앞뒤를 같은 압력으로 눌러, 앞뒤 면 모두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2. 활자로 인쇄를 했습니다. 지양의 글자는 아부리 건 문장도 26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는 26개의 알파벳을 돌로 찍어낸 글자들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글자들을 '활자'라고 합니다. 구텐베르크는 활자로 판을 썼습니다. 인쇄를 한 뒤, 그 판에 쓰인 활자는 다시 다른 판에 쓸 수 있어서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3. 활자를 나무로 만들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의 삶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기록을 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법정의 재판 기록 같은 것입니다. 구텐베르크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구텐베르크의 삶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1400년 즈음에 마인츠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구텐베르크는 스트라스부르로 옮겨 금이나 은을 비롯한 귀금속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마인츠로 돌아와서, 1468년에 죽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1450년 즈음에 인쇄소를 차리려고 요하네스 루스트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뒷날, 구텐베르크는 이 돈을 갚지 못해 법장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루스트가 쇠따라는 사람과 손을 잡고 인쇄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푸스트



쇠 따

금속 활자를 만들다

구 덴베르크는 금속으로 글자를 만들 수 있는 기구인 '활자 주조기'를 발명했습니다. 활자 주조기는 매우 실용적이고 빨랐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1분에 4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겨진 금속을 보다 물림물림한 금속판에 눌러서 인쇄할 글자를 새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종이에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글자가 똑바로 나타납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활자 주조기를 오므리면 네모난 모양의 빈 공간이 생깁니다.



빈 공간의 아래 부분을 인쇄할 글자가 새겨진 금속판을 대고 단단하게 조입니다.



빈 공간의 윗부분으로 뜨거운 철에 녹인 쇳물을 흘려 넣습니다. 쇳물이 식어 단단해지면 활자 주조기를 열어서 새로 만들어진 활자를 꺼냅니다.

한지 한들러고 하는 글자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과 오른쪽, 왼쪽이 서로 바뀐 모양을 금속에 새깁니다.



요하네스 쿠텔베르크는 금속 활자 인쇄술이라는 혁신적인 발명으로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쿠텔베르크가 인쇄술의 역사를 새로 만들기까지 어떤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구텐베르크보다 앞서 금속 활자를 발명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뜻글자인 한자를 쓰다 보니 금속 활자 인쇄술이 널리 쓰이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처럼 금속 활자를 사용하여 인쇄술을 발전시킨 서양의 인쇄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옛날에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과거의 인쇄술이 정보화
시대인 오늘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기 쉽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값 9,000원

